



[대학의 변천과 의미]

과목 : 매체와 메시지:미디어의 이해

담당교수 : 박성진 교수님

학과 : 경영학과

학번 : 2014110115

대학은 가장 오래 동안 유지되고 있는 사회제도이며, 보편적인 사회제도 중의 하나이다. 대학이라는 제도는 최근 들어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러 문제를 비판하기에 앞서, 대학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대학은 단지, 여러 제도 중 하나에 존재할 뿐일까? 아니면 우리의 사고에 깊숙이 파고들어, 가치관이나 생각까지도 지배하는 하는 제도일까?

마셜 매클루언의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에서는 “모든 미디어나 기술의 “메시지” 는 결국 미디어나 기술이 인간의 삶에 가져다 줄 규모나 속도 또는 패턴의 변화¹⁾”라고 주장한다. 미디어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한두가지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패턴까지도 바꿀 수 있는 총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에 의한 모든 인공물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대학도 하나의 ‘미디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대학의 커다란 필요성, 의미, 용도에 함몰되어 대학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영향을 파악하지 못한다. 마셜 매클루언도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다름아닌 미디어의 “내용”때문에 그 미디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 각종 산업들이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은 겨우 오늘날에 와서 였다. 예를 들어 IBM 사는 자신들이 사무장비나 기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명확한 비전 속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 반면에 제너럴 일렉트릭 사는 전구와 전기시설을 판매해 상당한 이윤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AT&T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²⁾

마셜 매클루언은 “인류의 문화사를 볼 때 예술가들의 미미하고 부수적인 시도들을 제외한다면,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의 다양한 요인들을 새로운 확장물들에 맞도록 의식적으로 적용시킨 사례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다.³⁾”라고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학에 대한 생각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학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나중의 출세를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목적’으로서의 대학이다. 대학에 대한 비판의식이 뚜렷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초창기 시작은,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대학은 인간 본연의 학문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아카데미적 성격을 띠고 탄생했다.

대학의 성립에 있어서 이런 여러 배경보다 더 중요한 점은 중세의 지적 호기심과 정열이 종교적 열정과 길

¹ UM.(2011), p32

² UM.(2011), p33

³ UM.(2011), p141

을 달리 하기 시작했을 때 대학이 탄생되는 기운이 싹 났다는 점이다. (...) 대학 성립은 교권이나 왕권 혹은 시민계층의 특정한 요구에 의한 것도, 지역 교육이나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것도 아닌, '학식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관심'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 것이다. 인간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학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에 적합한 여러 상황들과 결합되면서 대학을 태동시킨 것이다.⁴

대학은 12세기 무렵부터 시작해서 2,3백 년의 세월을 두고 형성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여러 사회사적, 문화사적, 경제사적 요인이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인간의 학문에 대한 갈망이었다. 서양의 역사에서 '12세기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는 라틴어 고전, 그리스 철학과 과학의 부활이 이루어지며 대학 성립의 학문적 토대가 된다. 이러한 학문주의에 바탕이 되어 탄생한 대학이 오늘날의 도구주의로 전락하기까지는 수많은 사회적 영향과 요구가 있었다. 중세 이후 대학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와, 국가 등의 외부적 세력의 영향 아래서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본연의 인문주의 운동을 펼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작업화 되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인문주의자들이 문학, 역사, 시 등에서 순수학문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면에 당시 대학들은 이미 성직자, 관료, 의사, 법률가들을 배출시키는 실용적 전문인 양성에 경도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그 당시 대학은 학문중심주의와 도구주의간의 갈등에서 도구주의로 나아간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학문을 발전시키는, 본연의 역할에 다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종교의 강요된 선택과 교수들의 축출되는 부행, 대학의 위축과 같은 시련을 감내해야 했다. 이 시기에 자연과학을 인문주의 교육에 추가시키는 등 대학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 이 시기의 대학은 '학문중심주의'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절대주의 시대와 계몽주의 시대에는 대학들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비판이 있다. 절대주의에는 대학이 국가의 기능적인 기관으로 전락하고 국가의 시설이나 다름없는 교육기관으로 바뀌고 말았으며, 적극적인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고 수동적인 역할만 담당하게 되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위임에 따라서, 필요하고 유익한 학문영역인 행정학, 응용과학 과학농업, 공공재정과 같은 분야를 개척했다. 대학이 학문을 바로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군주들의 부와 권력을 증대시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만 급급했다.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은 산업이 고도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로 하게 된다. 대학은 점차 세속화가 되어간다. 대학은 결국은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반응하며, 자율성 또한 지켜야 하는 딜레마적인 요구에 시달리게 된다.

대학은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하였다. 대학졸업장이 개인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강제적인 필수요건이 되고 대학이 취업을 위한 관문이 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인 것이다. 대학은 순수하게 학문

⁴ 「대학의 역사의 이념」, 1999, 김희봉, p113

을 추구하는 기관이었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공부가 싫든 좋든, 강제적으로 해서 대학을 가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에 많은 의심을 하게 된다. 그들이 머릿속에는 대학은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관이며, 자신들의 수년간 쌓아온 노력의 지표이다. 하지만 대학은 본연의 의미로 돌아가자면 무조건적으로 가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학문을 순수하게 추구하려는 '지식인'들의 기관이었다.

이렇게 대학의 의미가 변하고 대학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된 이유는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스스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수학, 문학, 철학, 역사 등과 같은 학문들이 우리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채워 줄 순수한 학문이 아닌, 대학을 가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지식이 된 것은, 대학이라는 의미가 자체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이 점수화고, 서열화된다. 학문을 순수하게 접근한다면, 대학에 서열은 존재할 수 없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이 서열화 되었다는 것은, 대학의 의미가 옛날과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대학의 정체성 위기가 대두되면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한다.

최근 몇 년간 대학은 새로운 비판에 직면했다. 새로 등장한 이 비판가들은 '진정한 자유 교양교육'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으며, 학생이 사회에 나와 경제적으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열을 올린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상품이다. 이들은 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 또는 돈을 지불하고 제공받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 과거에 사람들이 대학의 역할과 의미를 묻은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교양교육을 제공받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교양교육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발 더 나아가 전문직에 종사할 학생이 아니라면 대학이 일반적으로 교양교육이 아예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⁵

이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학이 도구주의에 함몰되어, 제 역할을 잃어가는 태세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낸다. 또한 '취업사관학교'와 다를 바 없는 기관이 되어가는 대학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한다.

산업화의 요구와 비례하여 대학의 '교양강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취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취업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전자는 기상천외한 강의의 등장에서 알 수 있다. '회계학'이 교양필수가 되기도 하고 '비즈니스 예절'이라면서 나비넥타이 매는 법, 기차에서 상사의 상석이 어디인지를 배운다. '글쓰기 강의'에서는 취업용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실습하고 '말하기' 강의에서는 면접 요령을 접한다. '이미지 메이킹'시간에는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를 연습한다. (...) '정답 너머에 있는 진리'를 찾거나, '추론에 추론을 거듭'하다가는 "교양강의면 교양답게 해야지, 안 그래도 취업준비 때문

⁵『대학의 배신』. 마이클 로스. 지식프레임, 2016, p164

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깐깐하게 구느냐”는 집단항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⁶

대학이 취업을 위한 도구적 기관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대학은 절대로 도구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의미로써 존재하는 대학은 도구주의를 벗어나 아카데미즘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한 그것만이 옳은 길인가?

도구주의에 압도당하여, 대학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아카데미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논란이 되었던 프라임 사업(인문, 예체능계의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정원 확대와 학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학문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순수 인문학과 예체능을 취업률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은 대학을 도구주의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아카데미즘을 위주로 대학을 규정하는 것도 대학의 독선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서는 안되겠지만, 시대적 요구에 어느정도 부응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대학 교육은 전문 직업교육의 이념과 인문 교양교육의 이념에 규정된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대학과 취업을 뗄 레야 뗄 수 없는 현실에서, 초창기 본연의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가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은 확실히 적응력이 있으며,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사회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대학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두번째는 대학이 오래 존속되고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까닭은 대학이 주요 기능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은 사회의 역동적 조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관계는 국가의 권력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 이와 같은 분석이 유명 대학들의 역사를 기능적으로만 파악하여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할지 모르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재를 배출하여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계층간 장벽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최고의 인재들이 대학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성공적인 대학은 권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처럼 신분상승의 기회와 아울러 적절히 훈련된 젊은이들을 제공하는 일은 여전히 대학의 주요 기능의 하나이다.⁷

대학의 목적은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도 있으나, 또 하나의 목적은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그들이 기업과 국가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뛰어난 전문인 양성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명제에서 학문주의와 도구주의, 그 중 하나에 치중되어 있는 시각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대학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⁶ 『대학의 배신』. 마이클 로스. 지식프레임, 2016, p235

⁷ 「대학의 역사와 전통이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1999, Colin Lucas, 대학교육 p73

시각도 균형 있게 바뀌어야 하며, 대학 스스로도 두가지 목적에 균형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마셜 매클루언(2011).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김희봉(1999). 「대학의 역사의 이념」

마이클 로스(2016). 『대학의 배신』

Colin Lucas(1999). 「대학의 역사와 전통이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